

셋째,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18) 인생이 넘어지려 하는 절박한 순간, 기도하는 자를 붙잡아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19) 말씀처럼 내가 근심의 포로가 될 지라도 주님의 위로가 넘쳐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신다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교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 도 인 도 자

찬 송 370장 다 같 이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만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 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덕담 가족 중 어른

주기도문 다같이

추석 가정예배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이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부름 다 같이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오늘까지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같이 추석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시107:1)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301장 다 같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 도 가족 중

성 경 봉 독 시 94:16~19 다 같이

16.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17.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18.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19.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말 씬 도우시는 이 인도자

사랑하는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 앉아 감사와 덕담을 나누는 한가위입니다. ‘감사’ 하면 먼저 거뒀던 풍성한 열매들이나 사업의 번창, 기도 응답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참 감사는 나 중심의 ‘열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16) 현 상황을 이길 어떤 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담긴 고백입니다. 나는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닛시’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17) 영혼이 침묵에 잠겼을 것이라는 표현은, 인생이 끝났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지금까지 생명을 이어 가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19가 여전히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께께서 장래에도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가위는 온 가족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 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